



고창 모양지구대, 농산물 절도 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 모양지구대(대장 천광종)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관내 고추 농가에 방문하여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모양지구대는 우리마을 담당 경찰관이 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방송을 통해 농산물 절도 예방 요령을 설명하며 농산물 건조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노상 등 절도 위험이 있는 장소에 건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힘있게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에게 보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북흥파출소, 장마철 안전사고 취약지역 점검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북흥파출소(소장 정대홍)에서는 장마철 관내 공사장과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유실되거나 전기누전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교통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낙터저수지 방벽공사장 등 공사장과 교통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다.

정대홍 북흥파출소장은 "공사장과 교통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순찰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기술협력국 장 권택윤

◇과장급 승진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장 최선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속가능한 일자리 힘모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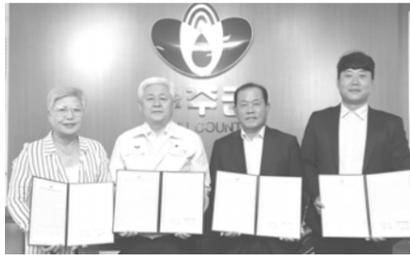
무주군(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약정 체결... 무주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 등 3곳

무주군은 지난 24일 '농업회사법인 피그달리온 허브(대표 김용)'와 '무주덕유산 반딧불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원)', '농업회사법인 카소플(대표 권현남)'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신규(재심사)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 약정 체결을 계기로 무주군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가기로 약속했다.

약정서에는 무주군이 각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인건비,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등)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한 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해줄 것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무주군은 (예비)사회적기업 진흥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시 인중(예비) 연수에 따라 12개월 간 1인당 월 157만 원에서 177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4대 보험료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신규 진입 유도를



를 위해 사회적 경제 전담 매니저를 두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업 취약계층들을 위한 든든한 일자리 기반"이라며 "이번 약정이 기업들의 동참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고 취업 취약계층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수면 '사랑의 온도탑 100℃ 올리기' 목표 달성

진안군 성수면은 올해 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업을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100℃ 올리기' 사업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운동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개월 1만원씩' 정기후원을 할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씩 올라가는 사업으로 당초, 년 말까지 100℃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및 향우 등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성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지호, 이하 지사협)', '성수면', '전북공동모금회'와 3자협약을 맺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지사협'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성수면'은 사업홍보 및 행정지원, '공동모금회'는 후원금 및 후원자의 연말정산 세금공제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허브화 사업의 하나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

함에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기초 아래 시작했다.

6월말까지 80여명의 후원자들이 3천2만원을 모금에 참여했으며 년 말까지 1천만원의 모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2021년도 성수면 마을복지계획에 반영하여 성수면 관내 저소득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협의체 정지호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목표는 달성됐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저도 이번에 사랑의 온도탑 운동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지역 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각자의 역할을 모아, 자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기수, 광정근)는 지난 23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추진된 아동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위원들은 협의체의 안정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성덕면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서로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광정근 민간위원장은 "지역내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훈련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4일 본서 3층 강당에서 현장중심 긴급구조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도상훈련은 장수-익산간 고속도로 상행선 장수터널 800미터 지점에서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다중추돌 교통사고로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발생을 가정해 다중추돌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각 부반 통제단 요원의 재난상황 대응능력 향상, 각 대원의 임무숙지 처리능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기능별 임무 숙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가동절차 및 운영요원별 담당 업무 역할·숙지에 중점을 두어, 통제단 각 부(반)장 및 출동대는 재난 상황 제시에 따른 개인임무 발표하고 자신의 역할 및 조치사항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소방서, 순창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순창소방서(서장 김형철)와 순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승연)는 지난 23일 순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및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우선보급, 화재·구조·구급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조기안정을 위한 생활안전지침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협력 공동체로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업무 방향 등을 약정했다.

협약식은 양 기관이 상호 교류를 통해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소방서, 손가락에 낀 반지 제거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24일 오전 9시경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아 고스트랩다면서 119구조대에 반지를 제거를 요청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반지를 제거했다.

이 20대 남성은 반지를 빼기 위해 비누거품과 식용유 및 얼음물 등을 사용하였지만 손가락이 부어 빠지지 않아 직접 119구조대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전기정 구조대장은 "체질 상 잘 붓는 경우 수시로 손가락 상태를 확인해야하고 반지를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주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